

이덕일의 '역사의 창'



남한의 역사학, 북한의 역사학

광복과 동시에 분단이 되었으니 이제 남북한이 따로 산 지 75년째이다. 단군 건국 때부터 지금까지 4353년을 생각하면 사실 75년은 아주 짧은 세월에 지나지 않는다. 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 보면 남북의 문화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의 차이는 크다. 북한이 경제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처럼 사고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 남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하고 말하는 근본 원인은 역사관의 차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남북한 역사학계가 해방 이후 걸었던 길이 아주 다른 데 기인한다. 광복 직후의 역사학계는 대략 세 그룹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주로 독립 운동가들의 역사학인데, 민족주의 역사학이라고 부른다. 둘째 강점기에는 대한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인 백암 박은식, 임정 국무령 석주(石洲) 이상룡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지녔던 역사

학으로서 광복 직후에는 위당 정인보와 민세 안재홍 등이 뒤를 이었다.

두 번째는 사회경제사학자들로 불렸던 학자들로 마르크스의 사적 유훈론을 지지하던 학자들이다. 백남운, 이청원, 전석담, 김석형 같은 역사학자들이다. 세 번째는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에 근무했던 역사학자들로서 이병도·신석호로 대표된다.

첫 번째 그룹은 광복 후 친일세력 청산이라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미군정이 다시 친일세력을 등용하는 바람에 해방 정국에서 도태되었다. 여기에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정인보·안재홍 등의 역사학자들이 납북되면서 남한에서 사라졌다. 두 번째 그룹은 미군정 때 대거 월북해 북한의 역사학계를 형성했다. 북한은 이들을 주축으로 1947년 2월 17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내에 '조선력사편찬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학술지 '역사문제'를 발간했다. 위원회는 "가장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역사에의 거해서 조선 민족의 장구한 역사를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옮겨 표현"하겠다는 목

표를 세우고 역사 연구에 나섰다.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옮겨 표현'하겠다는 말은 남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으로 보겠다는 말이다. 특히 유학자들의 중화사대주의 사관과 조선총독부가 만든 식민사관의 해체를 역사학의 목표로 내걸었다.

일제 식민사학은 몇 가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남의 식민 지배를 받아야 역사가 발전한다는 타율성론이 배후의 가장 큰 이념이었다. 이를 위해 조선사편수회는 한국사의 강역에서 대륙과 해양을 잘라내 반도사로 축소시키고, 그 반도의 북쪽에는 고대 한(漢)나라의 식민지인 한사군이 있었고, 그 남쪽에는 고대 야마토와의 식민지인 임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 임나는 가야라는 '임나=가야설'이었다. 결국 일제 식민사학을 극복한다는 것은 '한사군 한반도설'과 '임나=가야설'을 극복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부분에서 남북한 역사학계의 지금 견해는 어떤가?

결론적으로 북한 학계는 한사군 한반

도설은 1961년 리지린이 북경대에서 통과된 박사학위 논문인 '고조선연구'에서 한사군은 한반도가 아니라 고대 요동에 있었다고 밝힘으로써 청산했다. 또한 1963년 김석형이 '삼한삼국의 일본 열도 분국설'을 발표해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분국·식민지라고 정리함으로써 '임나=가야설'을 해체시켰다.

그러나 남한 학계는 현재도 한사군 한반도설과 임나=가야설이 하나뿐인 정설이라 믿는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 사람들이 아직도 조선총독부 학설을 따른다고 우습게 보는 것이다. 또한 이런 역사관의 차이가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근본 배경이 되는 것이다. 조선총독부 역사학을 해체하고 독립 운동가들이 세웠던 우리 관점의 역사학을 복원하는 것이 이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길이자 여러 모로 혼란한 이 나라를 바로잡는 첩경이다. 이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신한대 대학원 교수)

의료칼럼

담낭 용종



최병관 담대내외과 원장

최근 검진을 통해 복부 초음파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담낭 질환의 발견이 증가하고 그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진단이 잘 되는 담석과 달리 담낭의 용종은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로 초음파나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을 통해 발견된다. 용종이란 점막에서 융기한 병변을 말하며, 점막은 신체 기관들의 내벽을 덮고 있는 부드러운 조직을 뜻한다. 위, 대장의 용종은 내시경을 통해 용종의 모양을 직접적으로 관찰·판단해 내시경 시술 시 조직 검사를 시행, 1주일 내에 비교적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담낭의 용종은 조직 검사를 시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수술 전에 예측한 진단과 수술을 통한 조직 검사 결과가 다른 경우가 있어 향후 추적 관찰의 기간이나 치료 등의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담낭은 우상 복부의 갈비뼈 아래에 주로 위치하고 있다. 주머니 모양으로 간의 아래쪽에 붙어 있으며,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간 내의 담관을 따라 담낭으로 이동하면 농축시키며 저장하고 있다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총담관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분비된 담즙은 지방 소화와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담낭 용종은 크게 양성과 악성으로 분류가 되고 양성에는 선종, 혈관종, 지방종, 근종 등의 진성 용종과 콜레스테롤 용종, 염증성 용종, 증식성 용종 등의 가성 용종이 있다. 양성 중 가장 흔한 용종은 콜레스테롤 용종이며, 지방을 함유한 세포가 점막 내에 침착돼 용종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체 담낭 용종성 병변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한다. 선종성 용종은 양성 상피 종양으로 수술로 적출된 담낭의 약 0.5% 정도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돼 있으며, 선근종증은 담낭 내

압력의 증가나 염증 등으로 인한 담낭 벽의 비후를 보이는 양성 증식성 병변이다. 악성은 대부분 선암종이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담낭암이다.

담낭 용종의 가장 좋은 진단 방법은 초음파이며 추가적으로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이미지를 통한 예측일 뿐 가장 정확한 진단 방법은 수술적 절제를 통한 조직 검사다. 앞에서 언급한 양성 용종들은 담낭암으로의 변화는 보고되어 있지 않으나 담낭암과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담낭 용종은 담낭 절제술로 치료하며, 이는 담낭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시행한다. 한국 간담체 외과학회에서는 담낭 용종에 대한 진료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먼저 담낭 용종의 크기가 발견 당시 1cm 이상이거나 추적 검사 중 크기가 커지는 경우, 50세 이상의 나이에 서 발견되는 담낭 용종, 다발성보다 단독으로 존재하는 용종의 경우, 크기가 1cm 이하더라도 무경성 용종의 경우, 용종과 담석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 등이다. 담낭 용종의 크기는 악성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인자로 담낭암의 88%는 1cm 이상의 크기이나 1cm 이하의 용종에서도 담낭암이 발견되기도 한다. 또한 진단 시 환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담낭암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보통 단독 병변으로 진단되고, 다발성 병변은 양성 용종의 가능성이 높다. 용종만 제거할 수는 없거나 질문도 있는데, 이는 불가능하며 전신 마취 하에 담낭을 절제해야 한다.

요즘은 배에 구멍만 뚫고 수술하는 복강경 수술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상처가 잘 보이지 않게 배꼽을 이용한 단일 통로 복강경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 설사 담낭 절제술 후 조직 검사가 악성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근육층 침범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수술 없이 경과 관찰을 요하는 경우도 있다.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담낭 용종은 처음 1년간은 6개월 간격으로, 그 이후에도 변화가 없으면 1년 주기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추적 관찰하는 것이 권장된다. 위에서 권고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악성의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용종이 진단됐을 때는 전문의와 상담을 거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기고

아이 하나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석연 농협 구미교육원 교수

코로나19로 큰 시름을 앓고 있는 대구 시내 800개 유·초·중·고, 특수학교의 개학이 23일로 추가 연기됐다. 대상은 유치원 341곳과 초·중·고·특수학교 459곳으로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급속히 확산하자 선제적으로 추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어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의 신학기 개학일도 23일로 2주일 더 연기됐다. 이 같은 전국 각급 학교의 개학이 도미노처럼 연기되면서 맞벌이 직장인 네 명 가운데 세 명은 출근 후 자녀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한다.

최근 모 취업 포털에서 코로나19 이후 맞벌이 직장인의 자녀 돌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육아 공백을 경험했다는 응답자

의 비율이 76.5%로 집계됐다. 출근 후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했다는 비율은 유아(4~7세) 자녀를 둔 맞벌이 직장인에게서 9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초·중·고 85.7%, 영아(생후~3세) 75.8%, 중학생 이상 53.7% 등의 순이었다. 예상치 못한 육아 공백에는 당연히 부모가 구원 투수 역할을 맡아야 하나 응답자의 36.6%는 양가의 부모 등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연차 사용 29.6%, 재택 근무 요청 12.8%, 가족 돌봄 휴가 사용 7.3%, 긴급 돌봄 서비스 활용 7.0%, 정부 지원 아이 돌보미 서비스 활용·무급 휴직 각 6.1% 순이었다. 특히 응답자의 5.6%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정 방법이 없으면 퇴사도 고려 중'이라고 답해 현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농번기에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부락이나 마을 단위로 두레를 조직해 소농 경영(小農經營)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등 공동 노동의 상부상조 전통을 잘 살려 미풍양속으로 이어져 왔다. 우리의 전통적인 협동 사례에는 두레

뿐 아니라,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 주면서 품을 지고 갈고 하는 품앗이가 있다. 일을 하는 '품'과 교환한다는 '앗'이 결합된 말로 한국의 공동 노동 관행 중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이다. 품앗이는 베푸는 쪽과 그것을 보답하는 쪽 두 당사자를 항상 포함하게 된다. 품에 대해 보답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반드시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아 두레보다 규모가 작고 단순한 임의의 작업에서 수시로 이뤄졌고 사사로운 일에 쓰임이 많았다. 품앗이는 시기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작업의 종류에도 관계없이 농가에서 자기의 힘만으로는 노동력이 부족한 작업을 할 때 수시로 조직되었다.

품앗이는 오늘날에도 조직되고는 있으나 그 양상은 많이 달라졌다. 근대화된 농촌 사회에서 환금의식(換金意識)이 발달했기 때문에 품앗이의 바탕에 깔린 인력에 대한 평등 의식은 보다 합리적인 타산성의 작용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원래는 소 이외에는 사람 품앗이뿐이던 것이 소와 소, 대등한 노동력을 가진 사람끼리 또는 경운기 품앗이까지 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필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방학 연기와 휴원으로 돌보 줄곳이 부족한 지금의 비상사국 이야말로 전통 협동 사례를 다른 모습으로 계승할 가장 적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바로 같은 아파트 단지, 인근 주민들이 어린이 등 취미 계층 돌보미 품앗이, 또는 두레와 같은 역할을 온라인상으로 모집해 도움이 간절할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다.

'2019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터넷 접속률이 99.7%에 달하는 '인터넷 강국'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온라인과 SNS를 활용해 '나눔 육아'를 실천한다면 방학 연장과 휴원으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진정 필요한 현대판 두레, 품앗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이 하나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 국민들이 고통받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이웃의 한 아이라도 더 잘 키우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다.

社說

'나눔'과 '연대' 정신으로 코로나 이겨 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기 위해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나눔'과 '연대' 정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어제 오후 대구 확진자 두 가족 일곱 명이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달빛 고속도로)를 이용해 구급차를 타고 광주 빛고을 전남대병원에 도착해 응급 병실에 입원했다. '달빛동맹'을 맺은 달구벌 대구와 빛고를 광주지의 '병상 연대'이다. 이 같은 '병상 나눔'은 정부의 국가 지정 병상 운용 계획이 아니라 지역사회 합의에 따라 대구 환자를 광주가 자발적으로 받은 첫 사례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

앞서 광주시는 1일 "대구 2·28 정신과 광주 5·18 나눔과 연대의 정신으로 대구경중 확진자들을 광주에서 격리 치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병실 부족으로 고통의 확진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아픔을 겪고 있는 대구의 상황을 호전시키는 데 일조 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 시민들의 '나눔'과 '연대' 정신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실천되고 있다. 광산구 주민들과 다섯 개 구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면마스크를 만들어 공장과 역에서 나눠주는 한편 대구에도 보냈다. 광산구에서는 침체된 경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받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4일 현재 '코로나 19' 감염을 우려해 세계 94곳에서는 한국발 입국을 막고 있다. 아무리 확산 차단을 위한 행동이라지만 너무 지나친, 차별적인 조치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때에 광주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나눔'과 '연대' 정신의 작은 실천은 귀감이 될 만하다. 전파력이 높은 전염병 확산을 막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시민공동체의 '나눔'과 '연대' 정신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한다.

학원 수강생들 감염 없도록 점점 강화해야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추가 연기됐지만 광주 지역 학원들 대부분은 이달 들어 수업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지만 강의 일정과 생계를 고려하면 마냥 휴원할 수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그제 현재, 광주 지역 4733개 학원·교습소 가운데 휴원한 곳은 537곳(11.3%)에 그쳤다. 지난달 28일 2172개(45.8%)에 달했던 휴원 학원이 이달 들어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상당수 학원들이 지난달 일주일가량 휴원을 했지만 3월 개강에 맞춰 강의 일정을 짜 놓은 만큼 계획대로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여기에 아직 문을 열지 않은 학원들도 강사 급여나 임대료 등을 지출해야 하는 데다 보강 수업을 제때 하지 못하면 환불을 해 줘야 하는 탓에 개원 시기를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교육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각급 학교의 개학을 오

는 23일로 추가 연기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학원들에 공문을 보내 가급적 휴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 시달이어서 강제할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감염 가능성을 고려하면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게 타당하지만, 비싼 수강료와 학습 진도 등을 생각하면 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학생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는 행위가 감염병 대응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득이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면 학원들 스스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강의실의 수업 인원을 평소의 3분의 1 이하로 줄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수업 때마다 이상 증세를 보이는 학생이 없는지 점검하며, 세정제 비치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도 위생용품 지원과 함께 학원들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약소국이 감내해야 할 설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강대국은 아랑-배려보다는 어찌-독식에 더 익숙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협약을 체결하면서 불평등한 내용을 강제하는 등의 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웅홀하고 뻔뻔한 그들의 행위에도 생존이 최우선인 약소국들은 분한 감정을 속으로 삭일 수밖에 없다.

춘추전국시대 오패, 즉 패권을 잡은 다섯 명의 군주들은 주변 국가 군주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를 회맹(會盟)이라고 하는

데, 강대국이 아니면서도 이를 모방하는 군주도 있었다. 송양공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는 주변 약소국인 등·조·주·증 등과 회맹을 약속한 뒤, 주저하며 늦게 온 증나라 군주를 산 채로 가마술에 삶아 죽였다.

사자성이 '간어제초'(間於齊楚)도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 전국시대 초기, 제·초의 틈바구니에서 편할 날이 없었던 등나라 군주 문공은 때마침 찾아온 맹자에게 "누구를 섬겨야 편안하겠느냐"는 우문(愚問)을 던진다. 현명한 맹자마저도 "다만 죽기를 각오하고 지기라"고 애매하게 답

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의 '열하일기'도 어찌 보면 청나라 황제의 '갑질'로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륭제의 칠순연회를 맞아 축하 연행단에 참여한 박지원 등이 북경에 갔는데, 건륭제가 자신의 피서지 열하로 올 것을 갑자기 명령한 때문이다. 그들이 초인적인 힘으로 하룻밤에 아홉 번 강을 건너 열하에 간신히 도착했다는 이야기(一夜九渡瀋江)가 열하 일기의 하이라이트다.

외교 수난

최근 미국의 한 언론이 매긴 강대국 순위에서 한국은 '무려' 세계 9위에 올랐다. 하지만 우리는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7위 일본 등이 가까이 자리한 지정학적 위치에, 북한까지 돌발변수로 작용하면서 외교에서만큼은 여전히 약소국처럼 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북 정책, 사드 배치, 주한미군 유지 비용 등에서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난제들만 가득하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정부가 강력한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부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지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역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세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